

'익산형 농촌유학' 전국적 주목

폐교 위기 넘긴 옹포초, 2학기 추가 모집에 5명 신규 전학...현재 가족 포함 17명 전입

"도시를 떠나 농촌에 왔더니 아이가 웃고 가족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익산형 농촌유학'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들의 발걸음 하나가 지역학교를 살리고, 가족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는 올해 2학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유학생 5명(가족 포함 12명)을 추가 유치하면서, 현재까지 총 8명의 유학생을 포함해 17명의 가족이 옹포면에 정착했다고 5일 밝혔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옹포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 16명 중 절반이 유학생으로, 도시 학생들의 전입이 학교 유지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옹포초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지만, 농촌유학 덕분에 교실에 웃음이 돌고 있는 학교다. 교사·학부모·지역 주민 모두가 학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옹포초를 농촌유학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체류 공간을 정비했다. 리모델링부터 가구·생활용품 지원 등 주거 기반을 갖춰 도시 가족들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익산형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일정 기간 농촌 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와 마을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는 정주형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학습 위주의 교육을 넘어 자연 속에서 뛰놀고, 마을 주민과 교류하며, 함께 밥을 먹고 자라는 생활 중심형 교육이 이뤄



'익산형 농촌유학'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진다.

실제 유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뛰어놀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며 "도시와 다른 환경에서 오히려 공부보다 더 집중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 역시 "아이의 생활 습관과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선생님과 마을 어른들이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어주니 안심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으로 가족형 농촌체험캠프(11가구, 40명 참여)를 운영해 도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전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캠프는 단기 체류를 넘어 장기 유학과 이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유학을 왔던 한 가정은 익산에 완전히 정착한 사례도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과 정주, 공동체

회복을 하나로 묶는 농촌유학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지속가능한 인구 반전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농촌에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양방향 정책"이라며 "교육을 매개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성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으로서 △공공형 방과후학습관 '너븐' △청소비 100원 버스 △회복적 생활교육 △보건으로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 총 2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익산형 농촌체험캠프와 농촌유학 체류지 리모델링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맞춤형 교육혁신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는 지난 주말인 6~7일 '2025 익산 고구마(순)에 반하다' 축제를 삼기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열었다.

달콤함 가득... 고구마에 반하다

익산 삼기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서 고구마 축제 열려

익산의 대표 특산물 고구마와 고구마순이 가을철 축제와 관광, 미식 콘텐트로 재탄생했다.

익산시는 지난 주말인 6~7일 '2025 익산 고구마(순)에 반하다' 축제를 삼기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열었다. 이번 축제는 지역 향토 자원을 알리고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고구마·고구마순을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제는 △체합형 먹거리 축제 △미식 전시·시식회 △열차 관광상품 △예술 공연 등 농업·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융합형 콘텐트로 구성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색다른 가을의 추억을 선사했다.

익산은 삼기·함라·함열 등지를 중심으로 고구마 재배가 활발한 지역으로,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자연조건 속에서 고품질 고구마가 생산된다. 여름철 대표 발효식품인 고구마순 김치 또한 익산의 전통 향토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축제장에서는 △고구마순 김치 담그기 △고구마순 곱질 벗기기 스피드 대결 △고구마순 불고기·육개장 시식 등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 콘텐츠가 운영됐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실속형 로컬푸드 축제로 구성됐다.

고구마 직거래장터도 마련됐다. 방문객들이 지역의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축제 기간 중 함께 열리는 '미식 고

구미술사 시식·전시회'에서는 고구마와 순, 잎을 활용한 20여 가지 건강 메뉴가 소개됐다.

이 행사는 익산시 주최·익산문화관광재단 주관, 삼기농협·원광보건대학교 RISE사업단 후원으로 추진되며, 시민 의견을 반영한 향후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는 철도 연계 관광상품인 '익산에 반하다 시즌3 - 고구마순 합창열차'도 함께 운영됐다.

이 열차는 고구마순 축제와 함께 전국 유일의 종교 화합 무대인 익산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를 연계한 복합형 관광상품으로 기획됐다. 특산물, 문화예술, 철도자원을 융합한 익산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다.

열차 관광객들은 △왕궁포레스트 식물원 △보석박물관 △고스라 정원 등을 둘러보고, 보석고구마 캐기 체험 등에 참여했다. 저녁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가 함께하는 4대종교 한마음 합창제 무대를 감상하며 종교를 아우르는 감동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고구마를 활용한 디지털 개발, 맛집 발굴, 미식 문화 여행지도 제작 등 라이즈(RISE)사업과 농업6차산업화 전략을 연계해 지역 미식 자산을 체계적으로 브랜드화한다. 관광·외식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최근 공무원 사칭 사기 기승... 주의 당부

최근 군산에서 사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군산시는 지난 5일 관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시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가해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복을 2천만 원 규모로 수의 계약하겠다고 지역 한복업체에 접근했다.

그러나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 "한복 구입비로 삼정제 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비정상적 요구를 하자 이상함을 감지한 업체 측이 시청에 확인 전화를 걸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후 선금금 송금을 요구하거나,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금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화나 문자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사칭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반드시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민호 기자

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1차소음 측정

군산시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 주최 소음영향도 조사의 1차 소음측정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비행장 소음측정은 매일 24시간 연속 측정방식으로 수행되며, 측정 기간은 군의 훈련 일정을 고려해 결정됐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군의 훈련 일정 변경에 따라 측정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측정지점은 10개 지점으로 △옥서면 6곳(남수리주택, 신오산촌 단독주택, 계산경로당, 레인보우아파트,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신성산 단독주택) △미성동 2곳(내초동 군산시 폐기물처리장, 내초동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 △소룡동 1곳(옥석동 한성빌 하우스타워) △옥곡유 1곳(어은리 단독주택)으로 주민협의 의를 거쳐 국방부에서 지점을 선정했다.

AN은 전문 용역기관인 삼우 조사에서 수행하며, 2차 소음측정은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익산시 천마아트센터 관리동

3층에 천마작은도서관 조성

익산시는 금마면에 '천마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어, 군인가족과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독서·문화공간이 마련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천마아트센터 관리동 3층에 있는 '천마작은도서관'은 군인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열람과 대출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 조성은 국방부와 '애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추진한 후원 캠페인을 통해 기반이 마련됐다.

또 KB국민은행이 4,000여 권의 도서와 서가, 각종 집기·비품을 지원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익산시는 우수 사업작은도서관 육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6년 생활임금 1만780원으로 확정

내달 중 고시·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 근로자 기본생활 안정 보장 역할 기대

군산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10,78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4일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기동향·시 재정 여건·정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225만 3,020원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의 월 급여 환산액인 215만 6,880원보다 9만6,140원 더 많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기준 224만2,570원보다 1만450원 오른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

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이다. 단,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지정은 시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노동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군산=김민호 기자

군산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 채택

환경보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가 지난 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 지역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는 정부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군산(새만금)·신사산, 군산-북천안, 군산-청양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이 포함된 것에 대한 군산시민의 강력한 우려를 대변하는 조치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환경보 의원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지만, 송전선로가 군산의 농지 등 삶의 터전을 관통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농지 오염,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농업 생산성 저하, 미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한국전력이 비용 문제를 시민들의 우려를 외면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



명했다. 군산시의회는 특히 송전선로 건설의 '전 구간 지중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단순한 경제적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 공사에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군산 지역 송전선로 전 구간 지중화 △군산시민 의견 적극 수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실질적 보상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 주요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군산시의회 청렴교육 실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5일 군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시작에 앞서 "주민과의 약속, 청렴서약식"을 진행하였으며 주요교육 내용은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제고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령 교육 △지방의원 및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를 소재로 한 2인극도 진행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군산 시민과 함께 정책 미래를 그린다

13일 군산대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콘서트' 개최

시민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소통 무대, 군산시의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콘서트'가 개최된다.

13일 오후 3시, 군산대학교 아카데미 홀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사전접수 등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즉석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행방식도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회가 아닌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시장이 답하는 참여형 소통 무대로 이뤄진다.

특히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군산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이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시도한다.

행사는 청년 패널의 진행으로 △시식 공연 △온·오프라인 자유질문 △



즉석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 참여형 소통 모델을 정례화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 정책으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안된 의견이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최우수'

A등급 선정으로 14억원 국비 확보 성공

군산시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되면서, 국비 14억원 확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5일 시 관계자는 "최우수 A등급 선정은 상위 10% 지자체에만 주어

진다"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 등급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군산시민에게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향후 시는 확보된 국비 14억 원과 지방비와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총 49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주택·상가·공공시설·산단 등 277곳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산=김민호 기자